

외국 학생 스터디 지원 '효과 톡톡'

한국-외국 학생 매칭 '스터디 어시스턴트' 호평 참여 학생 성적·어학 향상·각종 자격 취득 성과

외국인유학생들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중도탈락율로 이어져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북대학교만의 '스터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를 내며 외국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위원장 윤명숙)은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전공별로 선발해 2대 2로 매칭해주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학기에 한국학생 32명, 외국인 유학생 32명 등 64명이 참여해 전공 위주로 스터디그룹을 구성, 최소 주 2 시간 이상 한국어와 외국어, 전공과목의 학습을 함께했다.

이렇게 매주 스터디를 함께 한 학생들은 한 학기를 보내면서 눈에 띄게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는 실제 성과가 도출됐다. 64명의 참여 학생 중 10명

의 외국인 유학생과 13명의 한국인 학생들의 전공 분야 성적이 높아졌고, 5명의 외국인 유학생은 토플과 토익 등 언어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또한 한국 학생 5명은 일반기리기사, 축산기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비롯해 토익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등 한국과 외국인 학생 모두 윈-윈하는 성과로 도출됐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매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외국인 학생들이 생소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사업단은 최근 1학기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활동 면에서 우수했던 3개 팀과 성적향상이 우수한 2개 팀 등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우수 활동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상을 수상한 아프가니스탄 유학생 압둘바헤드누리(토목공학 4년)씨는 "한국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는데 매주 함께 공부하며 전공과 언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학업 외에도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영화

를 보는 등 교감하며 좋은 친구를 얻게 됐다. 다음 학기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적향상 우수상을 받은 중국 유학생 왕효봉(농업경제 4년)씨는 "한국 학생 도움으로 대학 생활도 자신감을 얻었고, 전략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되어 행복했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꼭 좋은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학생과 한국 학생이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2학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신입생에게까지 확대해 대학 내에서 세 계인들이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북대학교만의 '스터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를 내며 외국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우 고급화, 수출 위해 한·중·일 머리 맞댔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국제 세미나 성료 일본 축산 고급화 전략 벤치마킹·중국 현황 파악

한·중·일 축산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24일 전북대학교에 모여 한우 고급화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대, 건국대, 국립축산과학원, 전북한우산학연합회, 전라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축산분야 연구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한·중·일 축산 전문가의 발표와 강의가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축산 고급화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축산물 수출입 현황과 현지 유통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고급 한우육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북한의 한우 산업 개발을 위한 대중국(길림성) 연계 협력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엄창국 중국 연변대 교수는 중국 육우의 산업 현황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 그리고 고급육 브랜드

유통과 수출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일본 토호쿠대학교 노상건 교수는 일본 화우 브랜드 개발 전략과 해외의 수출 현황 등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이승제 팀장은 한우 해외 진출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에는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 전라한우협회, 육종농가에서 참여했으며, 농가와 전문가의 상호적 협의를 통해 실제적인 축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 학교 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연구를 통해 얻은 고급 한우육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일본 화우의 브랜드 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중국과 일본의 축산 소비 트렌드와 유통현황 및 한우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단이 고급한우육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통해 유전체 선별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육질·육량이 우수한 한우 육종 개량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된 한우의 고급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변국에 수출한다

면 한우 농가의 소득이 더욱 증대되고 쇠고기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업단은 올해 3월 연변대학교 중국육우과학기술연구소와 육우 연구 개발 및 학술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육우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축산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한우 산업 개발 시 한국·북한과 중국이 연계 협력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였다. /김재훈 기자



한·중·일 축산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24일 전북대학교에 모여 한우 고급화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익산맑은샘유치원' 내년 개원

익산교육지원청, 교명공모·선호도조사 바탕 교명 제정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019년 3월 1일 익산시 오산면 일원에 개원예정인 공립 단설 유치원의 교명을 '익산맑은샘유치원'으로 제정했다.

이번 교명 제정은 교명공모, 교명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열린 전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명심의 위원회에서 시민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결정 됐다.

시민선호도조사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익산맑은샘유치원(56.4%) 슬리유치원(31.8%), 익산자라유치원(11.8%) 순이었다.

'맑은샘'은 설립 예정지인 오

산면 청수(淸水)마을의 지명에서 따온 말로, 원아들이 샘솟는 맑은 물처럼 티없이 맑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와 장애 유아를 위한 '치유'의 뜻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익산맑은샘유치원의 교명은 전라북도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교명선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익산의 학부모, 학생,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개원 준비 TF팀 구성 등의 행정력 집중으로 '익산맑은샘유치원'의 원활한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교육부, 우수진로체험 인증기관 152곳 선정

신청기관 대상 3단계 심사... 공공기관 52곳·민간 100곳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7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한 결과 2018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152곳(공공기관 52곳·민간 100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 사회에서 실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현재까지 총 6개의 체험처가 인증을 받았다.

선정된 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학생들에게 연 4회 무료 체험 행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공공·민간 누적

인증기관 숫자가 지난해 공공기관 918곳, 민간 800곳에서 올해 공공기관 1035곳, 민간 1036곳으로 비수축했다. 진로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진로체험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차에서 선정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점을 전달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기존 인증기관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8월 중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1월 중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무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정수)은 25일, 무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2018 무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 100여명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참석자 모두가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토론방식을 적용했다.

토론회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의 교육현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 6가지를 선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및 군청 관계자,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다수가 참석했으며, 토론회 결과는 교육지원청은 물론 군청과 군의회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